

#### 4. 장기 경제·사회발전(1977~91년) 연구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를 시작한 다음 해부터 KDI는 ‘장기 경제·사회발전(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년)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기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의 요청으로 시작한 이 연구는 15년 후의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발전상을 전망하는 작업으로 1976년 6월에 착수하여 1977년 말에 완료했다. 과거를 돌아보는 연구와 미래를 전망하는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턱턱지 않은 인력으로 근대화과정 연구와 기타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장기 경제·사회발전 연구를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1년 먼저 착수한 한국의 근대화과정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외부 학자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야 했다.

이 연구에 참가한 외부 연구인력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7개 대학교 교수 96명, 정부 부처의 전문 관료 90명, 국내 각 연구소 연구원 22명, 관련 업계 전문가 108명,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 28명, 합계 38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었다. 이들의 연구를

뒷받침한 보조연구 인원까지 합하면 무려 1천 명에 가까웠다고 한다.

경제·사회 전 분야에 대한 예측을 하는 연구였으므로 이들 외부 연구 인력은 전공별로 19개 분야의 연구파트에 각각 참여하였으며, 각 파트의 연구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KDI 수석연구원이 담당하였다.

19개 분야의 연구책임자인 KDI 수석연구원과 외부 연구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종합계획팀 - 김만제·김적교·김광석·남상우·KDI 연구원 4명  
(경제기획원 2명, 대학교수 1명, 세계은행·브루킹스 연구소·미국의 대학교수 등 외국 전문가 4명)
- 국제경제팀 - 박을용(외부 전문 연구 인원 10명)
- 재정금융팀 - 재정: 박종기(외부 전문 연구 인원 9명)  
금융: 사공일(외부 전문 연구 인원 15명)
- 무역팀 - 수출: 홍원탁(외부 전문 연구 인원 14명)  
수입: 서석태(외부 전문 연구 인원 14명)
- 산업조직과 유통팀 - 이규역(외부 전문 연구 인원 13명)
- 농림수산팀 - 반성환(외부 전문 연구 인원 11명)
- 에너지팀 - 김윤형·김대영(외부 전문 연구 인원 14명)
- 공업팀 - 김적교·김영봉(외부 전문 연구 인원 95명)
- 교육팀 - 김영봉(외부 전문 연구 인원 17명)
- 주택팀 - 김광석·박준경(외부 전문 연구 인원 8명)
- 사회보장팀 - 박종기·민재성(외부 전문 연구 인원 10명)
- 국토 및 도시팀 - 송병락(외부 전문 연구 인원 20명)
- 수송팀 - 송병락(외부 전문 연구 인원 14명)
- 통신팀 - 이종욱(외부 전문 연구 인원 7명)
- 보건팀 - 주학중(외부 전문 연구 인원 13명)
- 고용인력팀 - 김수곤(외부 전문 연구 인원 14명)
- 인구팀 - 홍사원(외부 전문 연구 인원 14명)

- 과학기술팀 - 이종욱(외부 전문 연구 인원 6명)
- 국민생활팀 - 주학중(외부 전문 연구 인원 17명)

이들 KDI 측 책임자 중 김적교·김광석 수석연구원은 종합기획팀에서 전체 연구를 기획 총괄하는 일을 하는 한편, 김적교 박사는 공업팀 책임자로, 김광석 박사는 주택팀 책임자를 겸했고, 박종기(재정팀과 사회보장팀)·김영봉(교육팀과 공업팀)·송병탁(국토 및 도시팀과 수송팀)·이종욱(통신팀과 과학기술팀)·주학중(보건팀과 국민생활팀) 수석연구원은 각각 두 개 연구팀의 책임자로 일을 했다.

이처럼 방대한 시스템이 가동된 '장기 경제·사회발전 연구'는 매우 조직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다. 18개 분야별로 행한 연구결과를 종합 계획팀에서 취합하고 분석 검토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 측정을 통하여 전망치(展望值)를 얻어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등, 약 2년간의 어려운 작업 끝에 1977년 12월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경제·사회의 근대화과정 연구'를 비롯해서 '보건기획단 사업',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 '인구사무국 사업' 등 큰 연구사업과 많은 단기정책 연구를 병행하면서도 1천 명에 가까운 방대한 연구인력을 관리한 이 프로젝트를 불과 2년 미만에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은 선진국의 일류 연구소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KDI의 연구능력과 연구관리능력이 향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성과였다.

연구가 끝난 뒤 이 연구보고서가 담은 향후 15년간의 경제·사회의 전망은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경우 매우 낙관적이었다.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할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산업정책의 개발과 에너지 및 자원확보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수요 증가와 주택·보건·교육 등 복지분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재원 마련과 정책개발이

전제되었다.

물론 연구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걸림돌들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성장의 실적으로 보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준비만 한다면 극복이 가능한 문제였다.

이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향후 15년의 전망은 각 분야에서 고무 희망적인 것이었다. 1인당 GNP는 1976년 802달러에서 1991년에는 7,731달러로 전망되었고, 무역수지도 3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었다. 주택·보건·통신·수송·국민생활 등 모든 분야의 전망도 좋았고, 특히 공업부문에서 상당한 발전이 전망되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총량계획팀에서 18개 분야의 연구를 총괄하면서 공업부문의 책임자로 연구에 참여한 김적교 박사의 기억은 이 보고서의 충격이 어땠는가를 짐작케 한다.

“연구보고서가 나가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나치게 장밋빛 그림을 그렸다는 비난이 많았어요. 소설을 썼다고 혹평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당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많을 때여서 국책연구소인 KDI가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 같은 미래상을 제시하여 국민을 기만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KDI에서는 연구 내용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울과 지방을 다니며 설명회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향후 15년 동안의 청사진은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근거 없이 그린 장밋빛 그림도 아니었고 소설도 아니었다. 국내외 해당 전문학자를 총동원하고 재계·관계가 모두 참여하였으며,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일본의 미쓰비시연구소, 세계은행의 전문가는 물론 미국·영국의 일류 학자들까지 참여한 연구결과로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분석과 실증적인 연구의 산물일 뿐이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어긋난 부문도 많았지만 예측이 정확하게 적중한 부문도 많았다. 어긋난 부문은 오히려 전망치를 낮게 잡았다

는 사실이 그 후의 실적에서 증명되고 있다.

GNP 부문을 보면 1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예측보다 실적이 약간 높았고, 1인당 GNP는 91년에 7,700달러로 예측했는데 실적은 6,757달러로 약 1천 달러 높게 전망됐다. 무역수지는 91년도 30억 달러 흑자 전망이 96억 달러 적자로 나타나 크게 빗나갔다. 그러나 1986년도에는 예측 28억 달러보다 3억 달러 많은 31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적중률이 높은 부문은 공업이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철강 생산은 91년도 예측이 3천만 톤이었고 실적은 2천 8백만 톤(오차 0.007포인트), 자동차 보유 대수는 예측이 280만 대(승용차)였고 실적은 273만 대(오차 0.025포인트), 조선은 예측이 420만 톤이었고 실적은 440만 톤(오차 0.05포인트)이었다.

공업부문 연구책임자였던 김영봉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전자공업부문에서 컬러TV 국내 보급 대수가 81년에 39만 대, 86년에 90만 대, 91년에는 1백 1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야의 연구원들까지 고개를 가우뚱하는 것이었습니다. 1976년 당시 국내에서 컬러 TV는 생산되고 있었지만 모두 수출용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위화감 조성파 사치풍조 조장을 이유로 컬러TV 방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80년대 초에 보유 대수가 39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니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81년도 우리나라 컬러 TV 보급 대수는 전망 대수 39만 대의 3배에 가까운 1백 19만 대를 기록했다.

“그때 우리 연구가 전망한 수치는 빗나간 것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의 전망치보다 실제 상승분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역시 김영봉 박사의 기억이다. 국토 및 도시팀과 수송팀 책임자로 작업에 참여한 송병락 박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이 연구를 주관한 KDI는 어용이다.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 집권연장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시

와 수송 쪽을 맡았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 수송문제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선을 주축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여객은 그쪽에서 소화하고 기존 철도를 화물 전용으로 해야 한다는 레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자동차의 증가에 대비하여 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도로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썼지요. 보고서가 나가자 고속철도 이야기는 정신 나간 사람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자동차 증가문제는 정부에서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교통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길을 넓히고 새로 내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었지요. 경부고속전철 역시 91년 6월에 계획이 발표는 되었으나 착수는 90년대 후반으로 연기되어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기 경제·사회발전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미래를 내다본 연구로서 그 내용이 너무 생소하여 공론이 분분하였지만 이 연구는 그 후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의 지침이 되었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실제로 5차·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연간 계획 등 중·단기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기업에도 경영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대응하고 경영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 후 1985년 9월에도 KDI는 두 번째의 장기 발전전망 연구를 끝내고 총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이름은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 발전구상 연구』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의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 대비하여 세계경제와 사회의 미래상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21세기에는 세계의 경제와 사회질서가 급속하게 변화하여 국경이 없는 경쟁시대가 오고, 지식산업이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부터 교역부문은 이미 국제화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GN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우리나라 역시 21세기를 대비해야 했고, 예상되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상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를 그려보고 준비를 해야 했다. KDI가 두 번째 국가의 장기 발전전망의 연구사업으로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 발전구상 연구'를 한 것도 이런 동기에서였다.

이 연구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산업연구원·과학기술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과 학계·산업계·정부 부처 등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였고, '장기 경제·사회발전 연구' 때와 같이 KDI가 연구를 주관하였다. 국내외의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모든 여건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분석 연구하여 2000년의 발전된 우리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었다.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 발전구상 연구'의 연구결과는 첫 번째의 '장기 경제·사회발전 연구' 때처럼 많은 논란이 일지는 않았다. 두 번째의 장기 전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생소하지 않았고, 이런 분야의 연구가 갖는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의 이 연구결과 역시 그 효용성면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장기 경제·사회발전 연구'와 약 5년간이 중복되었지만 거시적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많은 자료가 담겨져 있었으며, 기업에게는 21세기의 기업전략을 설계하고 새로운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한 꿈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국가와 기업에도 중요한 활력소로 작용한다. 10년 또는 15년 후의 먼 앞날을 설계하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이를 운용할 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미래에 대한 구상과 모색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행한 두 차례의 장기 발전전망에 대한 연구는 이런 의미에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요소와 문제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KDI가 수행한 연구 중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꼽힌다.